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3.(월) 11:00,
(지면) 2023. 4. 4.(화) 조간

배포 2023. 4. 3.(월) 06:0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 발족

- 국내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및 업계의 세계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 세계 해상교통정보 시장규모 2027년경 약 24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4일(화) 부산에서 해운·조선·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를 발족한다.

이 협의회에는 ▲ HMM, SK해운, HMM오션서비스, STX 마린서비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마린웍스, 지엠티, MRC, 삼영이엔씨, AM 텔레콤, 유비테크, 빅바이트, 엔에스원소프트, 에이브노틱스, KT, KT SAT, SK텔레콤 등 해운·조선·기자재·통신업체와 ▲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 등 관련 협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중소조선연구원 등 연구기관, ▲ 동국대학교, 대한조선학회 등 학계가 참여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 통신기반의 지능형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국내 해상교통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이번에 발족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해상교통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 국제실증, 국제표준화,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첨단 항해·통신장비,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등 세계 해상교통정보 시장규모가 2027년경 약 242조 원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국내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책임자	팀 장	권순태 (044-200-6141)
		담당자	사무관	이삼준 (044-200-6030)



□ 추진배경

- ICT 기술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 통신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 중
- 민관 협력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책을 마련하고 서비스·기술개발, 국제실증 및 수출 지원 추진

* (개념) 선박 운용·관리 전반에 IT·AI·통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新산업

□ 협의회 구성(안)

- (구성) △우리부, △해운선사, △조선소, △항해·통신장비 제조사, △항만운영, △통신사, △연구기관, △금융기관, △학계 등
- (운영) 정부·기업의 임원급으로 가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해사안전국장 주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
- (논의사항) ①서비스 모델 개발, ②기술개발 협력, ③산업 지원제도 마련 및 ④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 논의

